

[시험 후기]

로스쿨 졸업생이 바라보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솔직한 생각

-제1회 변호사 시험을 나흘간 치루고 나서의 후기-

허 중 혁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전공 수료
- 일본 바스코 다 가마 로펌 실무수습
- 김앤장 법률사무소 심화실무수습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수습
- 중앙대 로스쿨 3학년, 로클릭 서면통과



(제1회 변호사시험 장소인 중앙대학교 법학관 정문)

I. 들어가면서

1. 우선 시험일정과 난이도에 대해

2012년 1월3일부터 1월7일까지 5일 간(1월5일은 하루 휴식)의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서울 시내 4개 로스쿨에서 일제히 시행되었고, 저도 모교에서 다른 학우들과 함께 그 치열한 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3일 첫날은 공법 영역에 대해 오전에는 선택형 객관식, 오후에는 사례형 주관식과 기록형 시험이 있었습니다. 4일 둘째날은 형사법 영역에 대해 오전에는 선택형 객관식, 오후에는 사례형 주관식과 기록형 시험이 있었습니다. 5일 수요일은 휴식을 위해 하루 시험이 없었으나, 6일 셋째날은 민사법 영역에 대해 오전에는 선택형 객관식, 오후에는 기록형 시험이 있었고 다음날인 7일 오전에는 민사법 사례형 주관식 시험, 오후에는 선택과목의 시험(국제법, 경제법, 노동법, 지재법, 환경법, 조세법, 국제거래법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험을 치른 학생들 대부분이 민사법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고 형사법, 공법은 무난했다는 것이 중론이며, 저희 로스쿨의 지도교수님께서는 교수님들의 중론 또한 민사법은 다소 난해하고 형사법은 적정, 공법은 평이하다는 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

일부 언론에서는 법조윤리 시험의 탈락자와 졸업시험 탈락자 등이 발생하는 등 시험응시자가 총정원에서 300여명이나 줄어든 점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 기사를 보신 교수님들께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셨지만, 실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다수의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은 주변의 상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시험에 대비한 모의고사와 최신판례 등 막판 정리 등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점을 따기 위한 수업과 시험으로 정신이 없고, 방학 중에는 취업을 위한 각종의 실무수습 등으로 시간이 없는 재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여건은 전체 2천명의 재학생들에게 모두 동일한 조건이니만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모의고사와 실제시험을 경험하고 쓰이는 글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우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2차까지 경험해 보고 2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거치면서, 제1회 변호사시험과 세 번의 모의고

사를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가감 없이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로스쿨에 관해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써 봅니다. 하지만 이 글은 아직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공부방법이나 교재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시험의 경향과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정보가 공청회 자료라든가 세 번의 모의고사 문제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변호사시험 1회 문제는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험의 난이도나 운영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찬성과 반대 및 비판 등 많은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실제로 시험을 대비해 보고 시간과 양의 압박을 경험해 본 1기생들의 체감 난이도와 대비전략에 대한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흘 간의 실제 시험을 치러 본 분들 나름의 의견도 각자 다양하겠으나, 이 글에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한 로스쿨 졸업생의 사견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하시고 편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수험서가 정답은 아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스쿨 변호사시험을 과거 사법시험과 단순히 비교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사법시험에서처럼 학원의 순환 과정을 밟으면 그 대비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점과 달라진 현실, 즉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실무기록 등 이전과 달라진 여건 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로스쿨 수업현장을 보면 사법시험이나 기존 법학을 하다 온 학생들은 로스쿨 수업에조차도 신입동의 수험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으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이나 로스쿨의 성적 부여는 수험서를 들고 공부하는 것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과서이나 수험서이나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은 사법시험 시절부터 오랜 수험생들의 화두였으나, 이번 변호사시험과 로스쿨의 학내시험으로 수험서의 효용은 매우 축소되었음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나 주변의 재학생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도, 로스쿨의 학점은 가르치는 교수님의 교과서와 논문을 철저히 보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게 주어졌으며 실제 변호사시험은 연수원 민사 실무 교재와 검찰에서 배부한 검찰실무 내용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내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와 강평을 잘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쓴 답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써야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느냐는 결국 채점교수님들의 재량에 달려 있지 학원의 모범답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수님들께서 해 주시는 강평이나 채점기준표를 잘 분석하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II. 공부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력 유지와 시간 관리

1. 체력적 부담

이전에 고시계에 모의고사 후기를 게재하게 되면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예시된 대로 실제 시험이 진행된다고 상정한다면 그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시험을 치르고 늦어도 4시에는 시험이 종료되어 저녁에 그 다음날 시험을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하루에 세 번의 시험을 뛰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법 한 영역에서도 오전에는 객관식 선택형 문제를 풀어야 하고, 오후에는 사례형으로 2시간의 시험이 끝난 후 2시간의 휴식 후에 기록형 시험까지 치르고 나서 7시에야 그날 시험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의 경우보다 시험 시간이 더 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중간 휴식 시간을 주기는 하지만, 총 시험일정이 5일간으로 더 길게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시험기간 동안의 피로는 극에 달합니다. 실제로 시험기간 동안, 다른 학교 재학생들도 첫째날 시험이 끝나고 다음날 형사법 공부를 거의 못 하고 시험에 임했다는 등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변호사시험을 치렀던 1기생들은 합격률이 높다는 이유로 심리적 압박감이 다소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와 긴 시험일정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체력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날 시험의 공부까지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에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에 3시간30분 동안이나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는 등 나흘 동안 써야 하는 답안지의 분량이 상당하므로, 글을 정확하고 빨리 쓸 수 있게 감을 유지하는 것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2. 전 과목에서 객관식을 대비해야 하는 점

현재도 사법시험에서는 1차 과목에서 현민형 3과목과 선택과목 한 과목만 선택형 객관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선택형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 사이에는 몇 달 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시험 당일 사흘간 선택형 문제를 본 후에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이점은 사법시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국면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민사법의 경우에 오전에 선택형 시험문제로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영역에서 출제된 70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2시간에 7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의 압박도 만만하지 않지만, 출제영역이 광범위한 점도 쉽지 않은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1회 시험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례화된 문제여서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기존 법리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상 힘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도 현민형의 기본 3법의 객관식에는 익숙하지만, 민사소송법과 상법 객관식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법 객관식 문제 하나하나도 길이가 길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지만, 민사소송법과 상법의 객관식 문제를 모의고사 외에 자세히 연습해 본 로스쿨 재학생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기존 수험서에서도 이들 과목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가장 높은 체감난이도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험적인 대비는 앞으로도 로스쿨 수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 기존의 이론 공부 외에 실무적 내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1.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비는 평소 수강신청에서부터

보통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관계로 학점 취득을 위해 처절할 정도의 학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학사관리 엄정화 이후에 학내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게 되어 동료들끼리 지연제출이나 약간의 부정행위에도 매우 민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학점을 조금이라도 쉽게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당수 학생들은 부담이 되는 민형사 재판실무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1, 2학년들 과목인 실체법이나 발표 과목들을 수강하는 편법을 써 온 것이 사

실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수강신청은 결국 변호사시험 대비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학점은 학점이고 변호사시험 대비는 신림동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따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신림동 학원들의 시스템이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를 할 정도로 구축되지 않았을 뿐더러, 3학년 2학기를 끝나고 겨우 한 달 정도의 본격적인 시험 대비기간 밖에 없기 때문에 신림동에 왕래하면서 별도의 공부를 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1, 2학년 재학생들이 부족한 과목을 위해 신림동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기록형 공부를 위해서 신림동 강의를 듣는 경우란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의 모의고사를 치른 제 경험을 반추해 보건대,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기록형 시험에서의 실무적 내용에 관한 출제입니다. 공법의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번 1회 시험에서도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그 내용 중에 위헌법률심판의 논점을 넣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공법종합이나 공법변호사실무 등의 과목을 수강하면서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소장을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본 학생과, 오직 학점을 편하게 따기 위해 그 과목들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전혀 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법의 경우 모의고사에서 보석허가청구서 또는 변론요지서가 출제되었고, 이번 1회 시험에서도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검찰실무나 형사재판실무를 수강한 학생들은 무난했다는 평을 내는 반면 듣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웠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체감난이도의 평가가 극에 달한 과목이 바로 민사법인데, 모의고사에서도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 실제 시험에서도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으나, 청구취지의 작성 부분부터 민사재판실무나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사가 약한 편이라서 학점 따기 힘들 것을 각오하고 들었던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사변호사실무 수업과 시험을 거치면서 익혔던 연수원 민사실무 1, 2 교재의 내용들 일부가 이번 1회 변호사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형사법 사례형은 모의고사보다 무난

예전의 모의고사에서는 형사법의 사례형 시험에서 실무 내용을 알지 못 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어, 로스쿨 재학생들의 성적이 기록형 문제에서보다

오히려 사례형 문제에서 더 좋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의 사례형 문제들이 검찰실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으면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현직 검사님들이 직접 강의하시는 검찰실무 수업과 연수원 교수님들이 강의하셨던 형사소송실무 과목을 들었어야 했다고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제 시험에서 형사법 사례형은 오히려 모의고사보다 무난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용법조 기재레나 공소시효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었으나, 이번 시험문제는 과거 사법시험 문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무난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형사법은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 위주의 출제인 사법시험과 거의 유사했으며, 사례형 문제도 논점만 직접적으로 던져 주는 식일 뿐 사법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록형의 경우는 사법시험과 다른 점이 있으며, 그 점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3. 민사법 사례형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도 중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짧은 사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법시험 준비 때부터 많은 2차생들의 스터디매니저와 멘토를 경험한 저로서도,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 우수성에 있어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 상당수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에 비해 소송법 실력이 다소 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로스쿨 교수님들은 민법의 중요성을 워낙 강조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민법에 대한 공부시간을 워낙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간과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과목은 전필 과목 하나와 선택과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전필 과목 외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실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소송법의 중요 법리와 관례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1문 전체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법시험처럼 민법 따로 민소법 따로 보는 시험이 아닌 이상, 1문제 내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같이 엮여서 출제가 되는 시험의 특성상 소송법의 실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도 쉽지 않으나 민사소송법은 그 분량도 방대하며 매우 법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로스쿨의 개설빈도나 학생들의 수강 분위기는 그 열의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인 민사집행법 과목조차도 학점의 한계 때문에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인 점은, 앞으로 로스쿨 시스템에서 또 하나의 해결과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학생들만의 과실이라기보다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론과 실무 모두를 이수해야 하는 무리한 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형에서 민사소송법의 공부도 중요했다면, 기록형에서는 연수원 교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미 대다수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연수원의 요건사실론 교재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민사실무 1, 2 등의 교재는 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점에 대해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기존 사법시험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 기본서 위주의 공부에서 좀 더 나아가 연수원 교재까지 탐독할 필요가 있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V. 학설보다는 판례, 판례도 리딩 케이스 중심으로

1. 기존 사법시험 문제와의 차별화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가 철저히 신림동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유명 교수님의 교과서를 모두 다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학원의 부교재에 각 학설의 논의지점을 비교분석하여 시간을 줄여 주고 순환과정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곳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모의고사 후기에도 이런 내용을 게재한 바 있지만, 이번 실제 시험문제도 신림동 학원에서 막판 시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를 매우 줄이기 위한 출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로스쿨에서의 학교 강의만으로 변호사시험 전부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법리 외에 최신판례도 실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의 현직 실무가 분들의 강의만큼 실무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강의를 현재의 신림동 고시학원에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실무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학년이나 3학년 때에 개설되는 검찰과 법원의 강의 및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제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과거 사법시험에 비해 학설에 따른 해결에 의존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점이 분명했으며, 그 출제된 판례도 철저히 리딩 케이스 중심이었고 구석진 곳에 있는 판례는 거의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공부할 때에도 리딩 케이스가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문제화한 사례들을 철저히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출제된 인터넷 블로그 게시와 관련된 문제는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검열 금지의 원칙에 대해 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인터넷의 전파성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 헌법재판소 결정의 최신 내용까지 터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대비 교재의 부족

현재의 로스쿨 수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학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의 유용성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형법과 같은 일부 과목의 경우 반드시 판례가 학설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만 단언하기도 힘든 점에서, 로스쿨이라 하여 학설을 아예 안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험 경향과 앞으로의 추세를 보았을 때, 소수설에 입각한 공부는 훗날의 학문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교재의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교수님들께서 학원 교재가 아니라 교과서나 논문을 보라고 늘 강조 하셔서 최신판례에 대한 평석을 찾아보아도 시중에 기본서 외의 사례집이나 판례 집으로 나온 책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교수님들의 평석이나 상사법 쪽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찾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나와 있는 교수님의 저서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들의 정리서를 보는 형국이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 와서 그런 현실이 약간은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교수님들께서 로스쿨 형법 또는 로스쿨 공법 등의 제목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문제를 수록한 책을 내 주신 것은 매우 다행한 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로스쿨생들이 체계적으로 회독을 할 기본교재로서의 책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앞까지 가서, 그것도 연수원 앞의 복사집에서 연수원 기록교재를 복사해서 공부해야 하는 로스쿨생들이 많았습니다. 신림동 학원과 연수원 복사집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 수 있도록, 기존의 법조인 분들께서 더 좋은 교재를 많이 집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와 같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택형 시험의 대비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판례를 접해 보되, 특히 중요한 판결들은 깊이 있게 논점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의 짧은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행정법이나 상법 등의 이른 바 후4법 과목들에 대한 관례평석으로 수험적합적인 교재들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나 학교 강평 등을 통해서 평소에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V. 마치면서

1. 민사에만 치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소견

변호사시험 문제의 방향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번 시험문제 정도이면 로스쿨의 교육 과정을 열심히 이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도록 잘 출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 영역은 높은 난이도였음에 불구하고, 다른 영역은 그렇지 않은 등 법 영역 간의 난이도의 형평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 지나치게 민사만을 강조하고 공법 영역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법률가의 영역이 민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숫자와 관계없이 공법 영역이나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영역 등 많은 다른 영역들도 어려운 사건이 산재해 있는데도, 민사에 지나치게 치우친 수험경향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들이 민사에 비해 공법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민사법 영역에 대한 대비가 힘들어지는 것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민법 공부를 등한히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은 열심히 하지만, 민사소송법이나 연수원 실무교재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통합 민사법 시험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변호사시험은 끝났지만

그동안 로스쿨 1기 재학생들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행로를 걸으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하랴 자기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으랴 학점을 관리하랴 정말 힘들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법조시장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법시험을 수년 동안 준비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제 후배들조차도, 요새 와서는 어려운 현실을 접하면서 회의와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시장의 어려움보다 더 근본적인 논란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물론 심지어 같은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도 성적이 공개되어야 정당하게 노력한 학생이 대접받는다는 공개론과 로스쿨 교육의 취지를 위해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공개론으로 갑론을박 중입니다. 또한 과거 과천 시위에 대해서도 합격률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오히려 자승자박이라는 견해와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합격률은 무조건 높아야 한다는 견해로 부딪히곤 합니다.

저는 재학 중에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피력하기 힘들었던 현실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의 양성과 로스쿨의 정착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가 어떻게든 쉽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년을 고생하여 그토록 어렵게 합격을 하는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자격을 취득하면서 높은 합격률 주장만을 하는 것은 로스쿨생의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3.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과연 바람직한가

다행히도 재판연구원(일명 로클럭) 선발의 서면심사에 통과되어 지난 1월13일 사법연수원에서 필기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이번 로클럭 서면심사에는 350여 명이 통과하여 각 로스쿨 상위 20% 이내(추정)의 성적 우수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들었습니다. 학점 기준 상위 10% 이내의 성적 우수학생 중에서 검찰 심화수습을 거친 학생 위주로 선발하여 필기시험을 치른 검찰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자체는 예상보다는 무난했다는 것이 학생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현재의 제도가 또 다른 옥상옥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한 학생이라도 로스쿨 학벌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으면 원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성적비공개의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결과, 판사나 검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고 변호사시험을 잘 보고도 또 다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야 하는 옥상옥을 거쳐야 합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를 열심히 회독하고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따라 가면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 온 학생들이 그 공부한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 사법시험 수석을 한 지방대 학생의 성공담을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로스쿨 재학 기간 만나 뵈었던 선배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학 실력을 쌓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학실력이나 경력 등 스펙이 아무리 출중해도 결국 법조인이 오랜 동안 실무에서 인정받고 성공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학 실력이 튼튼해야 할 것이고, 일단 취업에서 먼저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한 법조인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란 취지였습니다. 결국 변호사시험이 끝났다 하여 법학 공부는 끝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하겠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제 나름의 정말 솔직한 진심을 담아 보려고 노력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기생들은 정보의 부족 상황에서 힘들게 나아간 점이 없지 않지만, 이 글을 읽으신 후배 재학생 여러분들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외부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부단히 자신의 노력을 경주 하셔서 로스쿨의 미래를 밝게 개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변호사시험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마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 모두의 좋은 결과를 기원 드립니다^^